

"행복한 대전 만들기"

2011 제1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 | 일시 | 2011년 5월 27일(금) 15시~17시
- | 장소 |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
- | 주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포럼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5:00~15:15	등록 및 개회 김은하(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15:15~15:17	개회사 개회사: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15:17~15:25	환영사 및 격려사 환영사: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격려사:장시성(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장)
15:25~16:00	주제 발표 “성주류화와 성인지력 그리고 정책” 발표자:김희은(사)여성사회교육원장)
16:00~17:00	지정토론 좌 장: 안정선(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간호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백종섭(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연복(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17:00~	폐회 정리

2011 제1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참가자 명단

성 명	소 속	사무실
강금자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부장	625-5441
강미정	온달의집/생활재활교사	620-8900
강수경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위촉연구원	
강은혜	대전 YWCA 부장	254-3035
강전희	대전여민회 대표	257-3534
고정우	온달의집/생활재활교사	620-8900
김경희	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320-7357
김명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담당 사무관	600-3541
김명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특별보좌실 보좌관	600-3300
김미정	대전여민회 이사	257-3534
김유진	대전가족전문상담센터	
김은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530-3548
김인자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80-2190
김정민	양성평등교육 강사	
김춘경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센터장	488-2979
김희은	사) 여성사회교육원장	
남인순	온달의집/생활재활교사(팀장)	620-8900
민소영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상담원	222-7042
민양운	대전여민회 사무처장	257-3534
박광희	양성평등교육 강사	
박성남	온달의집/생활재활교사	620-8900
배순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631-5570
백종섭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영희	양성평등교육 강사	

성명	소속	사무실
안정선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간호학과 교수	
오기숙	온달의집/생활재활교사	620-8900
유미	대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627-2957
유서현	양성평등교육 강사	
이명희	온달의집/생활재활교사	620-8900
이서영	충남대 사회학과 대학원생	
이숙자	대전광역시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이연복	우송정보대학 사회학과 교수	
이연신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대리	627-2957
이영란	양성평등교육 강사	
이옥분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252-9989
이용란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소장	636-2036
이유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위촉연구원	530-3549
이은정	온달의집/생활재활교사	620-8900
임복희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36-2036
임영순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소장	637-1366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320-7357
정경식	대한어머니회 대전광역시연합회 회장	531-3089
정순덕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장	
지선희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아동상담소 소장	526-3129
최진영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위촉연구원	530-3550
허선미	여성문제연구소 소장	
황연자	양성평등교육 강사	

2011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1)추진 위원회

성 명	소 속	E-mail
김경희	대전여민회장	women3534@hanmail.net
김명희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사무관	kmh5057@korea.kr
김명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특별보좌실 보좌관	kveronica@korea.kr
박노동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	labourbak@djdi.re.kr
박영애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yypark@hnu.kr
이영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교육강사	wqw1003@hanmail.net
정경식	대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jsk8254@hanmail.net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hyejinchu@naver.com
한성일	대전여기자클럽회장	sung10920@naver.com

1) 2011년 대전성평등정책 포럼 계획 수립 및 주제 제안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2011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은

- 대전 여성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사항을 반영하고,
- 젠더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 지역사회 여성계와의 공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 성인지적 관점과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대전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1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1. 목 적 : 성평등정책의 필요성 공감과 성인지적 의식으로의 전환,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방 법 : 전문가 및 대전 시민을 초청한 정규 포럼
3. 대상자 : 전문가 및 단체(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종사자, 여성정책 지원사업기관 종사자, 여성복지기관 종사자, 양성평등 강사, 교수, 연구자, 기업인, 종교인 등), 시의회 및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
4. 효 과 : 지역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적 여성정책 수립 및 대전시,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하는 성평등정책 및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
5. 시 기 : 3회 예정(2011년)
6. 주 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주제 발표

성주류화와 성인지력 그리고 정책

김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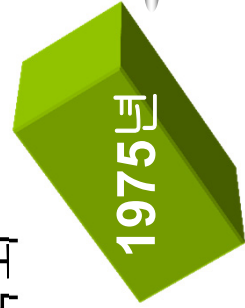
사) 여성사회교육원장

“성주류화와 성인지력 그리고 정책”

사)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김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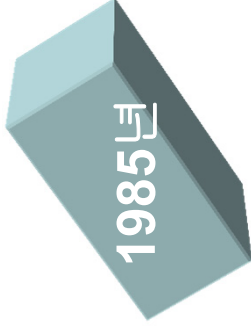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배경

● 국외



여성중심접근(WID:
Women In
Development)

- 복지적 관점 접근:
가족계획,
한부모세대지원,
요보호여성지원



젠더중심접근(GAD:
Gender And
Development)

- 여성과 남성간의 관
계 변화 초점:
남녀 평균 교육 년수
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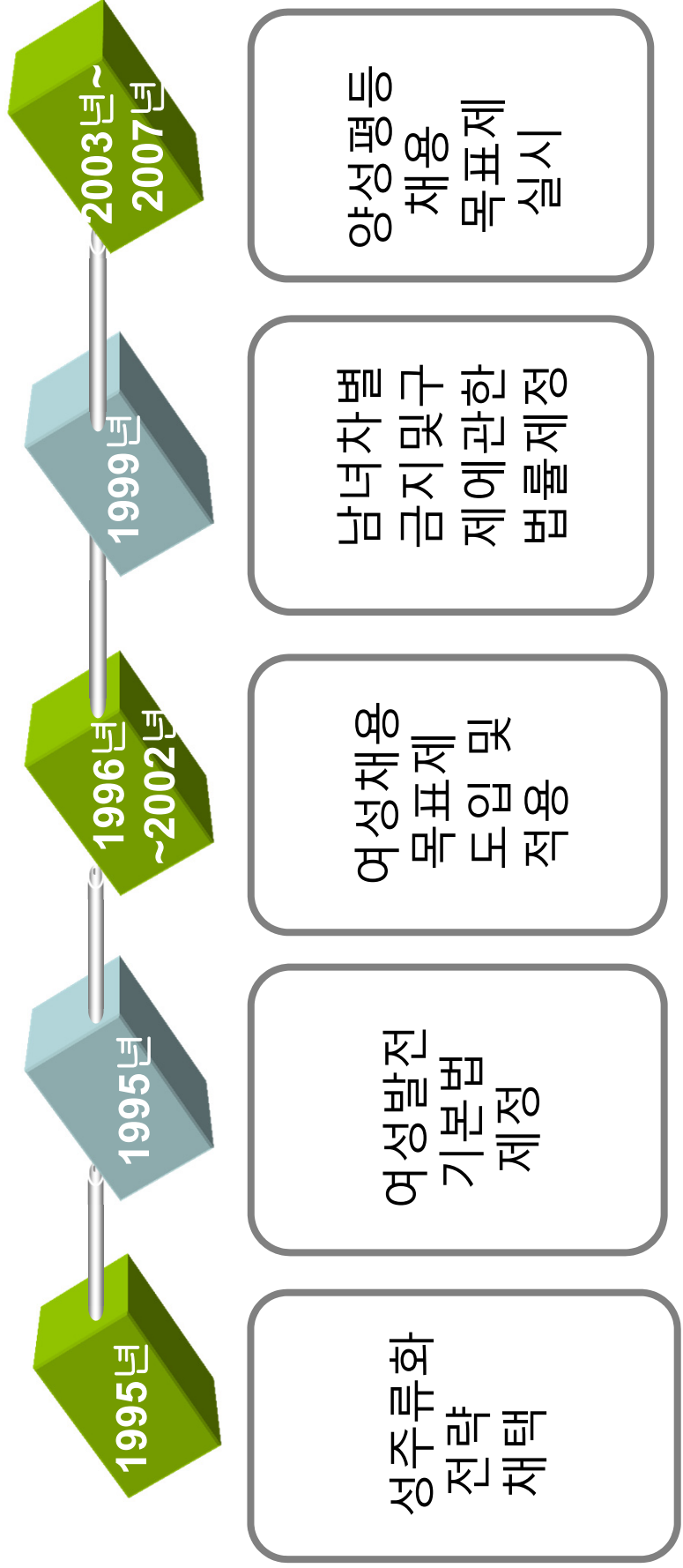


성주류화 패러다임
(GM:Gender
Mainstreaming)

- 성별관련 이슈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주류에 통합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배경

- 국내



행복지수

- 어린 시절
- 사회적 지위
- 인간관계

암발생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방식에 의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보건통계를 정리해 펴낸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아시아판(Health at a Glance-Asia)’에서 우리나라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61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시아 25개국중 몽골 289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OECD 평균 141명, 일본 120명, 북한 95명보다도 많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암종에서 17%를 차지하는 폐암에 이어 위암은 한국과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서 기인해 두번째로 일반적이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인의 당뇨 유병률도 한국이 7.9%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16일-

자살률

-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났고, 지금은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18일(현지시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자살을 조목하듯 기사를 실었다. WP는 이날 '변창한 사회의 우려스러운 경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26명으로, 이는 미국의 2.5배에 달하며, 문화 속에 자살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컷뉴스 2010년 4월 19일-

여성이 한을 품으며 오누이를 서리가

내린다



성별노동분업/역할

- 생산노동
- 재생노동
- 바깥일
- 집안일
- 감정노동

젠더에 대한 반란

여성

- 남성은?

사회참여

- 일차적 경제 부양으로
부터의 해방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기혼 남성의 79.7%는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65.2%만이 동일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도 남성은 1.7%, 여성은 3.2%로 각각 집계됐다. 이혼에 대해서도 기혼남성은 71.7%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으나 기혼여성은 58.6%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데일리 2010년 5월 16일 -

무지개같은 세상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엠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우리는 장미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웃어 줄 뿐이다 우리
는 장미를 본것이 아니라 장미라고 이름붙여진 꽃한송이를
보았을 뿐이다

우리는 피라미드조직 위계적 권위적 조
직문화가 아니라



저마다 반짝이는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
수많은 조직을 원한다



연구통장개설

금부용이테크리더

남성 전업주부 차별

- 2009년 3월 남성 전업주부가 모은행 카드를 발급받으려 하자, 은행 측은 그 동안 '주부'는 여성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그 주부가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인권위는 주부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부부 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일 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
- 나아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기관 대상 직권조사. 4곳 적발. 3곳은 개선 약속, 한 곳은 시정권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기간	지급액	인원			월급여액	평균육아 휴직일수
		전체	여성	남성		
2002	3,087	3,763	3,685	78	20만원	여 178일 남 146일
20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여 195일 남 158일
2004	20,803	9,303	9,122	181	40만원	여 209일 남 186일
2005	28,242	10,700	10,492	208	40만원	여 211일 남 185일
2006	34,521	13,670	13,440	230	40만원	여 216일 남 191일
2007	60,989	21,185	20,875	310	50만원	여 216일 남 191일

자료 :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성인지역): 차 별 과 차 이

- 남성
 - 여성
- 공간지각
 - 언어
- 체계화지수
 - 공감 능력

기업의 성별영향평가 사례

- 한 톨대 다른 체감온도



암스 템플공향의 파리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가짜파리를 붙여놓음으로써 소변기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80%나 줄임

에기이10 드물이드10

형은 물이드 머드13구멍 드물이드
밖으로 튀는 수직의 양을 80%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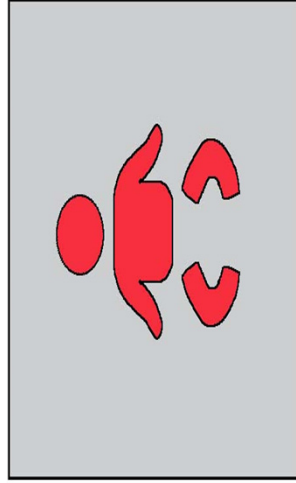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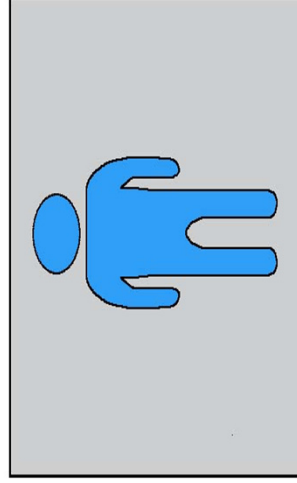
수영장 사용료의 차이

- 여성은 생리를 합니다
- 울산, 서울의 송파구청 사례

남자는 쇼핑을 싫어해

- 남성보다 여성의 쇼핑시간이 길니다
쇼핑의 목적의 차이:
필요물품/창의적 장보기
- 쇼핑센터의 의자들 :
앉아서 기다리세요
- 남자화장실의 기저귀대 설치:
기다리면서 아이보기

롯데마트 서울역점 1층 남자화장실
내부 - 기저귀 교환대 설치



남자화장실에
아기기저귀 교환대?

남성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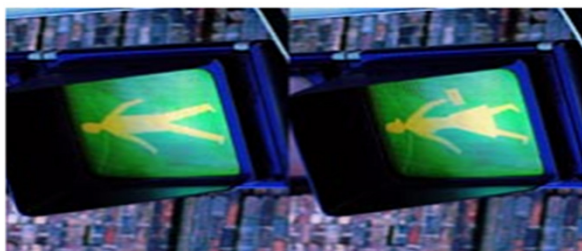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는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 이번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 행안부는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남자 화장실의 대상과 벌칙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

공공상징물들

- 여성은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 남성은 다친경우
- 건물목 신호등
- 공사판 삼질표시

여성도 출장다닙니다

- 용산역의 파우더룸
- 전동차의 손잡이 조절
- 강연장의 책상높낮이 조절



성별영향평가:

- 사업명 : 청소년 문화 존 사업
- 일시 : 2009년 5월~9월 매주 토요일
- 프로그램 : 3대3 농구, 풋살(실내축구)
- 운영위원회 : 10명(남성)
- 예산 : 5천만원
- 분석결과 : 참여인원 100명이 모두 남성
-> 인라인, 단체줄넘기 참가하니까 여학생
참여함

다양한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 공권의 박석
- 고개를 조아린 신하들의 눈이 부실까봐
- 하이델베르크의 추억 1985
- 장대석들
- 여성 장애인 노약자들 걷기 어려움



보도블럭과 하이힐

유족연금제도

-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족연금지급요건
-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수급요건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 아내가 수급자인 경우 5년간 연금을 지급받고 소득이 있으면 50세 이후부터 지급받는데, 남편이 수급자인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내와 남편의 수급요건을 같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가 지표 1

- 성별현황분석
- 1-1 성별통계현황
- 정책사업대상모집단의 성별현황
- 정책사업참여자의 성별현황
- 위원회의 성별현황
- 예산집행액의 성별비율
- 만족도의 성별비율
- 1-2 성별격차발생원인

성별영향평가지표2

- 2-1 정책개선방안
- 관련법령·지침 규정 등개선
- 사업수행방식개선
- 예산편성개선안
- 성별통계생산및 활용방안
- 2-2 정책개선계획

성인지예산과 의회

-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예산안및 결산보고서에
- 성인지예산서및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 첨부하도록
- 성별간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감독
- 지방재정법 2009년 8월 발의, 2012연도 회계연도예산안및 결산서적용

중앙부처별 성인지예산사업

- 국방부: 유격장여성편의시설 2010-11, 예산, 45.8%증가
- 외교통상부: 나이지리아국립소아병원과 과테말라모자보건향상사업, ODA사업증가
- 통일부 : 통일미래지도자과정사업 여성 10%불과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여성수혜율, 73%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의 성인지예산분석사업사례

- 육군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국방부)
- 환경기술전문인력양상지원사업(환경부)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의 성인지예산분석사업사례

-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사업
- 공공근로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사업
- 저소득층주거안정화사업
- 고용촉진훈련사업
- 바이오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
- 서울숲

부록

성별영향평가도구 이해자료

자료1. 성별분리통계의 사례점검

사례1 : OECD 주요국 고학력 여성 고용률

연합뉴스 | 2010.06.30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주간(7월 1-7일)을 맞아 발표한 'OECD 주요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일과 건강'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의 고학력 여성(25~64세) 고용률은 61.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onhap_graphics



김토일 기자 kmtol@yna.co.kr / 20100630

사례2 : [서울신문]●남초 심화... 적령기 성비 113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된 '남아선호형 저출산'의 부작용이 남성들의 결혼 대란으로 현실화할 조짐이다.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이다. 결혼 적령기 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가 지난해 95명에서 내년에는 88명으로 7명이 줄어든다. 2014년에는 84명으로 감소한다. 단순계산으로 남성 16명은 결혼 적령기 여성 중에서 짝을 못 구한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이 4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적령기(남성 28~32세, 여성 26~30세)의 남녀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혼인 적령기 성비가 각각 105.1과 108.7로 자연성비(103~107) 수준을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113.3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4년에는 119.5까지 솟구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적령기 연령에 단순 대입할 경우 2014년에 신붓감을 찾게 될 1982~1986년생 남성 184만명 중 154만명(83.7%)만 짝을 만날 수 있다. 30만명은 다른 연령대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게 된다.

●2014년엔 30만명이 '짝' 못구해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혼기를 맞는 2028~2033년에는 6년 연속으로 성비가 120을 넘어서는 최악의 결혼대란이 우려된다.

이는 80년대 이후 남아 선호 중심의 저출산이 주된 원인이다. 82년까지 80만명대를 유지하던 신생아 수는 83년 77만명으로 떨어진 뒤 계속 줄어 86년 63만명까지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 남아 출생비율이 급격히 뛰었다. 아들을 갖기 위한 임신중절 수술의 유행이 남자 신생아 비율을 크게 높인 이유다.

2028년부터 6년간 지속될 120 이상의 결혼 적령기 성비 불균형도 1990년 말~2000년대 초 저출산 현상이 원인이다. 이는 향후 결혼 풍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신부가 급증해 다문화 가정이 더욱 늘어나고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크게 늘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국내 남성의 결혼에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혼의 어려움이 커지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광희 충남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혼인기 남초(男超)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남성 미혼자 급증과 이로 인한 범죄 증가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례3 : 결혼 해야 하나? 남녀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 고희광 | 2010.05.19

[아시아경제 고희광 기자] 결혼한 남자의 10명 중 8명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10명 중 6명 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2008~2009년 2년간 배우자가 있는 남녀 2만3894명(남자 1만1916, 여자 1만19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결혼한 남자의 79.7%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65.2%만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는 남자 보다 여자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경숙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사무관은 "가사 분담의 경우 평소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부부 10쌍 중 1쌍도 되지 않는다"면서 "부인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으로 남편은 TV 및 비디오(DVD 포함) 시청(34.6%)을, 부인은 가사일(31.9%)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맞벌이부부 중 자녀가 아플 때 혹은 공부를 돌봐 줘야 할 때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1.6세, 여자는 28.7세로 조사됐으며 이는 10년전(1999년)과 비교해 각각 2.5세, 2.4세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2만4000건이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46.6%), 경제문제(14.4%), 가족간 불화(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중(27.2%)이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도 22.8%(2009년)로 나타나 황혼이혼의 증가세를 반영했다.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2006년에는 65.3%가 긍정적이었으나 2009년에는 81.5%로 늘어나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94만원, 비맞벌이 가구는 186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소비지출 중 교육비, 교통비, 식사비의 비중이 높았다.

남편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2.7%)인 반면 부인은 예금·적금(31.3%)과 사적연금(25.6%)으로 조사됐다.

사례4 : 집안일 돌보는 인구 600만명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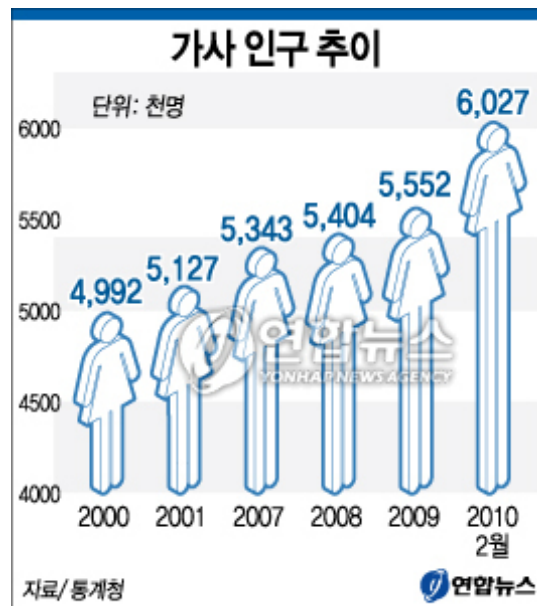
연합뉴스 | 2010.03.18 06:18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지난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살림살이를 하는 인구가 600만명을 넘었다.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 15명꼴이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38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만1천명(0.9%)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경제인구 항목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가사 인구는 602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8천명(4.1%)이나 증가했다.



전승엽 기자 kirin@yna.co.kr / 20100318

10년 전인 2000년 2월(542만2천명)과 비교해보면 60만명 이상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가사 인구를 연간치로 보면 2003년만 빼고 매해 늘었다. 2000년에는 499만2천명이었지만 2001년 512만7천명으로 500만명을 넘어섰고 2007년 534만3천명, 2008년 540만4천명, 2009년 555만2천명 등으로 늘었다.

지난달 가사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작년 2월보다 21만5천명(3.8%) 늘어난 584만8천명, 남자가 2만4천명(15.3%) 증가한 17만9천명이었다.

이런 증가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추세적인 현상이지만 여성 취업자가 경제위기를 맞아 상대적으로 더한 타격을 받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월 취업자가 12만5천명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여자 취업자 증가폭은 9천명에 그쳤고, 실업자는 남자가 10만1천명(16.7%) 증가한 반면 여자는 14만3천명(45.1%)이나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가사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 같다"며 "특히 농한기인 2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5 : 이혼사유 가족불화↓..성격.경제문제↑

연합뉴스 | 입력 2010.04.23 06:24 | 수정 2010.04.23 10:47 |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이혼 사유로 가족간 불화가 줄어들던 대신 경제문제나 성격차이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 12만3천999건 중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5만7천801건), 경제문제(1만7천871건), 배우자 부정(1만351건), 가족간 불화(9천159건), 정신적·육체적 학대(6천246건) 순으로 많았다.

9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할 때 가족간 불화 비중이 감소하고 성격차와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비중이 높아진 것이 두드러졌다.

가족간 불화로 인한 이혼 비중은 2000년 21.9%(2만6천195건)에서 2009년 7.4%로 떨어져 14.2%포인트나 낮아졌다.

반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비중은 2000년 40.2%에서 2009년 46.6%로 6.4%포인트 올라갔고, 경제문제로 인한 비중도 같은 기간 10.7%에서 14.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또 정신적·육체적 학대에서 발생한 이혼은 4.4%에서 5.0%로, 배우자 부정에서 발생한 이혼은 8.1%에서 8.3%로 각각 소폭 증가했다.

건강문제로 인한 이혼은 0.9%에서 0.6%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이 이혼 세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 여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지위가 과거보다 높아진 현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가 많아 가족 불화가 생길 여지가 컸지만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끼리 부딪힐 일이 많이 줄었다"며 "'황혼이혼'

이 늘어난 데서 보듯 불만이 있어도 참고사는 경향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표>2000.2009년 이혼사유 비교
(단위 : 건, %)

연도	계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2000	119,455	9,729	5,205	26,195	12,786	48,067	1,053
	(비중)	8.1%	4.4%	21.9%	10.7%	40.2%	0.9%
2009	123,999	10,351	6,246	9,159	17,871	57,801	743
	(비중)	8.3%	5.0%	7.4%	14.4%	46.6%	0.6%

사례6 : 취객난동 비용 해마다 440억원...답이 안보인다

노컷뉴스 | 권민철 | 입력 2010.05.18 06:03 | 수정 2010.05.18 07:15 |

술(酒)에 관대한 대한민국이라 했던가. 법치의 최전방인 일선 경찰서에서도 취객은 '왕'이요, 경찰은 '봉'이다. 변변한 제재 수단이 없어 경찰도 괴롭지만, 단순 취객들도 '범죄자'로 내몰리긴 마찬가지다. 공권력과 인권이 밤마다 동반 추락하는 현실과 그 대안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서울 마천파출소에는 하루평균 7~8명의 취객들이 들어온다. 택시비 시비, 노상난동, 주민신고 등으로 온 사람들이다.

대부분 얼마 뒤 귀가조치되지만 1달에 5명 정도는 모욕죄(경찰관에 대한 욕설)와 공무집행방해죄(경찰관 폭력)로 발전돼 형사입건된다.

그나마 내부 집기를 고무재질로 바꿔 공용물손파괴죄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한건의 주취자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만 매년 평균 439억 5666만원으로 추산됐다. 사건 당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 기물, 행정비용 등을 따져 계산한 결과다.

사례7: "매일 35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

노컷뉴스 | 입력 2010.04.19 01:15 | 수정 2010.04.19 05:42 |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났고, 지금은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18일(현지시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자살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WP는 이날 '번창한 사회의 우려스러운 경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가 26명으로, 이는 미국의 2.5배에 달하며, 문화 속에 자살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WP는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자살률은 1980년대에 정점을 이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으며, 급기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부유한 국가가 되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으나, 현대화는 한국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나머지 29개 OECD 회원국의 국민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자고, 입시학원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내 상당수 병원들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정신과(psychiatry)'라는 말보다는 '신경정신과(neuro-psychiatry)'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어 한국에서는 외로움, 질병, 가난 속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시골지역의 노인층과 인터넷을 통해 동반자살 희망자를 찾는 20-30대 젊은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이 몰고오는 연쇄반응 형태의 자살이 대중과 언론의 관심사가 되면서 '국민 여배우'로 불렸던 최진실이 2008년 10

월 자살한 뒤 그 다음 한달동안 1천700명이 자살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7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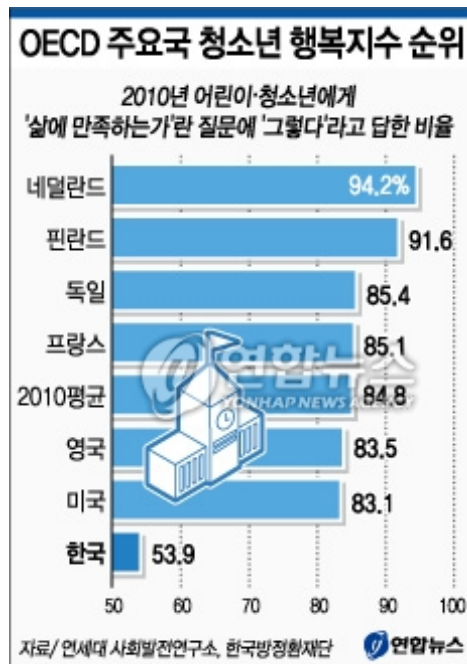
한편 WP는 이날 한국의 자살 급증 관련 기사에서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델 김다울, 최진영 등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인물 4명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사례8: "한국 어린이·청소년 `삶 만족도' OECD 꼴찌"

연합뉴스 | 입력 2010.05.04 08:44 | 수정 2010.05.04 15:26 | 누가 봤을까?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은 최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천437명에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벌여 유니세프의 2006년 연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김토일 기자 kmtol@yna.co.kr/ 20100504

조사 결과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은 `삶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53.9%가 `그렇다'라고 답해 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2명 가운데 1명꼴은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셈이다.

이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94.2%)보다 40.3% 포인트 낮고 OECD 평균(84.8%)에서 30.9% 포인트 모자란 수치다. 지난해 조사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55.5%)와 비교해서도 1.6% 포인트 더 낮아졌다.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26.5%와 18.3%를 기록,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대답은 16.7%로 일본(29.8%)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반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가'란 항목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7.0%로 노르웨이(38.9%)와 오스트리아(36.1%), 네덜란드(34.4%) 등과 큰 차이 없이 7위에 해당했다. '행동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등의 영역에서도 한국은 중상위를 차지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삶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 '학교생활만족' 등 6가지 부문을 합산해 점수로 표준화한 '주관적 행복' 지수는 65.1점(OECD 평균 점수를 100으로 봤을 때)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행복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1과 고2 전후에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돈'이라 답한 학생 비율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조금 앞섰으며 고 3때는 '돈'이라 응답한 학생 비율이 28%로 가족(22%)이라 답한 비율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으며 이어 외모, 부모 관련 스트레스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남학생보다 10% 이상 높았고, 남학생은 중 3을 기점으로 키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여학생은 중 2를 기점으로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다.

조사를 담당한 염유식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청소년들이 주관적 행복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입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고 부모는 자녀의 친구와 학교·학원 선생님을 잘 알고 지내면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2. 성인지예산제도 인식조사 결과와 개선방향사례(전주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향

1.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주시 공무원의 83%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모르고 있고, 86%가 성별영향평가를 모르고 있으며, 아는 공무원들도 50%이상이 공무원 교육이 아닌 타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그동안 전주시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5%이상을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이 여성공무원에게 집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2010년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이수자의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전주시는 각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부터 예산을 책정하여 시범 실시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55개 기관의 85개 과제가 분석되었고,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관련부서의 사업 뿐 아니라 행정, 경제, 교육, 복지, 건설, 교통 모든 부분의 주요사업에 필요하다.

<사례1> 성별영향평가로 공중화장실 법률개정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남·여의 수가 똑같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편의성과 관련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79초)이 남성(45초)보다 길고, 용도도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사례2> 성별영향평가로 교통부문 개선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는 지하철이다. 그런데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인 약 167cm에 매달려 있기에 어린아이나 노인, 여성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성별영향평가로 이런 불편함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객차마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고, 2009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170cm)과 여성용(163cm)으로 번갈아 설치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고, 2010년에 책정된 예산도 없다. 이제는 주요정책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타도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2010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국에서 한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정발전연구원이나 외부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3.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회의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조정,협력하는 기구가 있다. 2006년 9월 13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주영은 의원께서 전주시의 모든 부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인지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설적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시행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시장님께서 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질적 기구가 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여성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발전기금과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배분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정책위원회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권한도 없으며,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국,과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기획국이 중심이 되고, 성인지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청소년과는 지원을 해주며, 전문가와 각 국 국장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추진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4.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의 확보, 공무원 예산분석역량 강화, 추진체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은 물론이고,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분석방법 및 양식을 개발하고, 단계적 확대를 위한 세부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예산 수립 담당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국·과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한다.

맺음말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 목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농촌 여성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왔다. 결혼하지 못하는 농촌 총각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었다. 식량농업부는 농업발전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의 85%가 남성 농업인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후 식량농업부는 매년 농업발전기금의 성별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배분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성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고심한 농촌총각의 문제와 출산율 저하 문제가 완화되었다.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라는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이 만족하면 가족이 만족하고, 결국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건 도시건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어린이, 노인도 살기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이다. 얼마전 전주시는 지자체중 살기좋은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시청 청사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다. 전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성별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면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 지금보다 더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2009년 12월10일, 제267회 정례회의에 시정질문을 했고, 전주시장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예산 확보 및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와 중장기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하며 시행을 약속했다.>

전주시 시의원 구성은 제공

자료3. 독일의 성인지예산 사례

<경제촉진과 성인지 예산>

□ 배경

- 문헨시(이후 M으로 표기)는 2004년 봄, 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행정개혁의 하나로, 장기목표로 성평등한 예산지출을 실시하기로 계획
- M의 노동/경제 담당부서에서 ‘M의 경제촉진은 성인지 예산으로’ 라는 프로젝트를 SIM(사회과학 연구소, M) 에 발주(05.6.29.)
- 이 프로젝트는 GenderAlp!와의 관련성에 이루어짐

공간계획과 공공예산을 젠더에 적절하게 편성하자!
“GenderAlp! Raumentwicklung fuer Frauen und Maenner”

□ 목표

- 1) 행정 및 정치영역의 결정권자와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 제시
- 2) 알프스 국가간 행정영역의 경험공유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주류화 실현을 확실히 한다

□ 규모, 참여국가(참여도시) 및 기간

- 5개국(오스트리아,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슬로베니아)의 12개 도시 참여
- 이외에 12개의 도시와 지역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
- 국제 지역간 32개 프로젝트 수행 (기간: 05.01.~07.12.)

<SIM 프로젝트>

□ 경제촉진(지원) 영역에서 3개 분야를 선정

- 기업설립 촉진정책 (문헨 펀드)
- 일자리 창출 촉진정책
- 관광촉진정책 (마리아광장의 문헨 크리스마스 시장축제)

□ 분석내용

- 공적 자금 분배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역의 경제 정치활동에서, 양성을 위한 동등한 진입 및 적합한 이익 분배 등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가시화할 것인가?

□ 프로젝트 작업내용

- 장려책과 지역의 경제 정치적 활동을 평가하고, 성평등 성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에서 사용할 수 기초작업과 지표를 제시하기: 모니터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지표 개발

□ 구체적 목표

- 성평등한 그리고 대상집단에 적합한 예산정책의 발전을 가능케하는 정보생산
- 공적자금의 성평등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요구되는 추진체계 제시
- 자료미비를 알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자료부족(미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제시
- 현존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여, M의 경제추진정책의 현 상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를 만들어 내기

□ 구조, 추진체계, 방법론

- 1) 현존 자료 분석: 대상집단에 대한 정보 및 대상별 분배(배분) 연구
- 2) 추진정책의 유용성, 효과,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성평등 관점에서 생산하기
- 3) 성평등한 프로그램 목표, 결과, 성과를 가져오는 지표 구성하기

□ 연구방법

- 용역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분석
- 전문가 인터뷰/설문지 조사/설문에 대한 추가 평가등을 통해 자료와 정보가 생산
- 영역별 추천지표 생산: 가치를 이미 가진 지표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표
- 제시된 지표 중 요구되는 자료와 정보가 없지만, 정보생산이 필요

<관광추진정책: 마리아광장의 크리스마스 시장축제>

□ 영역 성과

- 1) 2005년 크리스마스시장 축제에 지원한 시장상인들의 서류평가
- 2) FH M에서 실시한 시장상인 설문자료를 평가
- 3) FH M의 크리스마스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 관한 설문자료 분석
- 4) 마리아광장의 관광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

*** 지표란 다양한 상황의 변화를 단순한 방식으로 모형화해야 한다. 전제는 변화의 크기와 특징이 측정 가능(숫자로 표현되는)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 지표는 없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통제하기 위한 핵심도구이다.

a. 맥락지표 또는 사회적 공간지표

(Kontext- oder Sozialraumindikatoren)

: 경제 촉진정책 목표의 분석, 합법화, 프로그램과 활동의 준비

b. 과정지표(Prozessindikatoren)

: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에 대한 진술

: 중요한 성과과정 및 협력과정의 설명

: 계획과정과 실행과정의 중요한 방향기능

c. 목표달성지표(Zielerreichungsindikatoren)

: 목표달성의 측정과 분석

: 촉진 프로그램과 활동의 결과를 서술하고 성공여부를 통제하는 데 사용됨으로 경제정책과 촉진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핵(Herzstueck).

: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 이미 개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공식화되고 작동되어야 함

촉진정책에서 의도한 성공 및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목표달성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지표는 서로 다르다

- 산출지표(output-indikatoren): 물리학상의 산출 및 성과 측정

- 결과지표(ergebnisindikatoren): 수익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영향 측정

- 성과지표(outcomeindikatoren=Wirkungsindikatoren): 장기적인 효과, 촉진정책 기간에 따른 시간별 측정, 구조적이며 경제-정치적 정책과 개입의 결과와 결론은 양적 지표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구조조정은 일차원적으로 개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말할 수 없다. 경제정책과 일자리 촉진 정책 - 일자리의 유지와 일자리 증가 - 의 경우 특히 여기에 해당된다.

*** 경제촉진 정책의 장기영향에 대한 측정 (숫자로 산출하는) 평가의 어려움과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의 현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성평등지향의 성과 지표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평등 경제촉진의 맥락에서 성평등지향의 촉진노선을 형성하고 조정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성평등 지향의 성과지표는 민감화 및 의견 형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주류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지며, 성평등지향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일반 개요:

- 주도인 뮌헨에 관광산업은 아주 중요한 의미
- 2004년 3,500,000유로(42억) 관광 매출 중 6%는 전시회 및 박람회 영역에서 발생
- 크리스마스시장은 뮌헨의 전통적인 행사로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옴.
- 뮌헨 크리스마스 시장의 매력을 유지한 것은 매우 중요
- 시 행정부는 크리스마스 시장에 참여하는 상인들에게 판매대 평수를 배분하는 역할을 통해 중요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한편으로는 판매대 평수를 올바르게 배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방문객(고객)의 만족도도 고려해야 한다
- 매해 150개의 판매대가 있으며, 이 판매대를 얻기 위해, 500개의 지원 서류가 온다.
- 크리스마스 시장의 특이함은 판매물건을 제한: 전통적인 바이에른-알프스 지방의 크리스마스 물품과 수공 예술품을 판매하게 한다. 쇼와 오락(여흥) 그리고 그 밖의 민속축제 행사는 1978년 연말 대목장과 크리스마스 시장 정관에 의해 금지됨

□ 크리스마스 시장과 성평등 지향

- 선발조건/매출조건/상이한 상황들

중요한 질문:

- 1) 여성과 남성이 경기(시세) 조건, 구매감소, 매출감소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가? 예를 들면 판매품의 차이와 관련해서
 - 2) 성평등은 여성고객의 입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시장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온다.
- 판매물건의 적절성, 가격 만족도, 방문회수, 일반적인 소비행위
 - 여성과 남성의 물건에 대한 선호구조를 고려하여, 판매물품을 동일하게 배분했는지, 여성소비자와 남성소비자 사이의 차이점이 있는 지 등,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만족스럽게 되었는지, 좀 더 정확한 대상집단에 따른 차별화가 도움이 됐는지 등

□ 지원방법과 허가

A. 일반현황

- 판매대 배분의 기본문장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로 요약
- 상인들은 행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지난 해의 중요한 기준(여성고객에게 친절, 믿을 만함, 적합한 판매품)을 알고 있음을 입증함을 의미
- 전년도에 항의 또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여성지원자가 관광청에 기한 내에 적합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판매대 지원자 집단들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새로운 지원자는 항의/병/사망 등으로 누군가가 실격되어 자리가 빈 경우에만 선발 가능성이 있다.

- 판매품이 바이에른과 알프스지방의 전통에 기반한 음식과 음료에 제한됨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는 다른 국제적 특산품을 가진 여성지원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허가 불가능하다.

B. 지원현황

- 2004년에 489명 지원: 151명(31%) 허가됨/338명(69%) 거부
- 138명의 여성지원자 중 52명에게 허가(전체 여성지원자의 38%)/ 남성의 경우, 207명 지원자 중 35명(17%)에게 허가/ 그 밖의 지원자(가족, 회사 등) 144명 중 64명(44%)에게 허가
- 대부분의 여성 및 남성 지원자는 문헌출신 (59%)/17%가 주변지역 및 바이에른 주/22%는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1%는 해외
- 성별과 연관시켰을 때, 관련된 차이가 나오지 않음

□ 시장상인과 고객 설문지 평가

- 지원서류에는 시장상인의 평가라든가 고객 행위에 대한 정보 자체도 없다.
- 프로젝트 팀은 문헌 FH에서 실시한 설문지를 평가함
-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으로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고객 행위의 트렌드와 시장상인들의 평가가 들어 있어서, 젠더예산 편성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 크리스마스 시장과 운영들에 대한 상인(남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 커다란 변화의 필요성은 없음, 남녀상인들은 크리스마스 시장의 전통적 특성, 지난 3년간의 실제 매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줌, 여성 상인이 남성 상인보다 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분명한 성별차이는 국가별 (독일인, 비독일인), 나이별에 따라 나타남, 성별과 나이로 구분한 집단에서 크리스마스 시장 방문의 의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많은 집단에게 그냥 사는 “부산품”의 성격을 가짐: 젊은 여성 방문객의 경우 느릿느릿 걷기, 시간보내기, 친구와의 만남 목적으로 이곳에 오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끄는 매력은 거의 없음
- 응답자 중 대다수의 사람(67%)이 크리스마스 시장 방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여기에 남녀 차이는 없고, 국가별 차이가 있다. 독일인 중 13%, 비독일인 중 8%가 자동차를 이용, 독일 여성방문객 중 4%, 비독일인 방문객 중 15%가 버스 이용, 독일인 중 6%, 비독일인 중 12%는 기차를 이용(표본 수가 적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 구매의도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비독일인 중 31%는 분명한 구매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방문(의미있는 성별 차이는 없음), 독일여성 중 19%, 독일남성 중 11%도 마찬가지였음.

-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와 비교해 보면,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의도했던 것 보다 실제 더 많이 구입, 남성의 24%와 여성의 36%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여기에서는 나이별,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 실제구매는 비독일인보다 독일인이 더 높다. 독일인 중 32%가 작년과 금년에 물건을 샀으며(여자 37%, 남자 25%), 비독일인 중 27%가 (여성 중 33%, 남자 중 18%) 물건을 구입

□ 근본적인 질문

- 1) 이러한 결과가 성평등한 관광촉진책과 분명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 2) 개관적인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한 이런 연구는 높은 예시적 가치를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결과, 고객지향 및 필요지향, 시장의 차별화를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분명한 진술을 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매출 만족도, 나이별 고객 행위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방법적으로 세련된 방문객 설문지와 비방문객 설문지가 있어야, 정확하고 분명한 진술이 가능하다고 본다.

□ 제안된 지표들

- 1) 제안된 지표의 사용 적합성은 구체적인 질문제기와 목표설정에 달려있다.
- 2) 행정에서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정하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 크리스마스 시장 관광촉진책의 지표

A. 맥락지표

- 성별에 따른 계절별 방문 수
- 성별에 따른 계절별 숙박 수
- 성별에 따른 방문객의 사회인구학적 구조
- 성별에 따른 관광인프라 만족도
- 관광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직종 범위 및 직급별 수
- 성별에 따른 정규직 관광종사자 비율
- 성열에 따른 관광종사자 만족도

B. 선발방법 지표(과정지표)

- 지원자의 사회인구학적 구조(=나이, 성별, 혼인지위)
- 선발과정에 대한 지원자의 만족도(성별, 회사, 가족 등등)
- 판매대 배분 결정위원회의 성인지 능력
- 결정을 위한 서류 점유권의 배분

- 표준화된 선발 및 결정원칙의 제시
- 성별과 기타 지원자 집단의 허가 수와 비율
- 성별과 기타 지원자 집단의 기각 수와 비율
- 성별에 따른 판매대의 크기
- 성별에 따른 판매대의 위치 및 더 유리한 장소
- 성별에 따른 판매위치 만족도
- 판매대 위치와 성별에 따른 매출
- 판매 상품과 성별에 따른 매출
- 성별에 따른 지원시도의 빈도

C. 목표달성지표(성과지표):

c.1. 상인들의 크리스마스시장 매력

- 성별에 따른 판매품 만족도 및 수요
- 성별에 따른 매출 및 소득
- 성별에 따른 지원시도의 반복
- 성별에 따른 판매대 위치 선호
- 성별에 따른 크리스마스시장 판매기한 만족도
- 성별에 따른 크리스마스 시장의 모습, 추진방법, 틀, 판매대 등에 대한 표현된 만족도
- 성별에 따른 판매상품 제한에 대한 동의

c.2. 고객지향 지표

- 성별과 연령에 따른 크리스마스 시장의 특별한 매력
- 성별에 따른 방문빈도
- 성별에 따른 다시 방문할 의도
- 성별에 따른 판매물품의 만족도
- 성별에 따른 분위기 만족도
- 성별에 따른 접근 만족도
- 성별에 따른 추천
- 성별에 따른 크리스마스 시장 미방문 근거
- 잠재적 방문객
- 성별에 따른 소비행위
- 성별에 따른 지출 계획 및 실제 지출의 차이
- 성별에 따른 가격 만족도

- *** 제안된 지표는 일차적 작업 원칙이며, 가능한 지표의 나열로 볼 것
- *** 다음 단계는 지표의 선발: 성인지 예산 분석에 어느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는 행정, 정치적 결정사항임
- *** 이를 위해서 성별화 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성과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 *** 성인지 예산 분석에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의 과제가 아니다. 외부전문가는 다만 제안을 해 줄 수 있다. 성인지 예산분석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 외부의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의미가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안이환 수석교수제공(070719)